

## 제2건국위 결과 보고회의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했던 시대 가치를 반드시 붙들고 성취해 나갈 것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2건국위원으로 활동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김상하 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제2건국 운동 이전부터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를 통해 여러분은 역시 지금도 우리가 이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이어가실 분이기애 작별 인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되고 나니 더욱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규정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저는 결코 실패한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돕고 있는 사람들조차 실패한 정부로 단정하고 뭔가 차별화 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태어나야 할 시대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서 할 일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큰일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더라도 지금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도 역사에 족적을 남기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2건국운동을 넘죽 받아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했던 가치는 제가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권을 잡겠다고 뛰어다니던 시기는 세계사의 조류가 냉전에서 화해와 평화의 시기로 이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화 물결이 밀어닥쳤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문명사적 이전이 이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과거의 사고와 행동방식을 고치고 청산이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 분을 도와왔고, 정권을 잡은 뒤에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립과 투쟁의 시대였습니다. 친일과 항일의 대립이 있었고, 지우기 어려운 감정과 적대의 골이 있었습니다. 해방이후에는 좌익과 우익으로 반목을 거듭하고 투쟁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는 독재와 반독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투쟁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대화의 타협보다 대립과 투쟁의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의회정치가 본격화 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새로운 정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권력이 아니라 원칙, 술수가 아니라 신뢰가 기초되고 정부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 룰이 지배하는 그 사회의 중앙과 주류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자율화, 분권화 하는 게 필요한 시기에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감당 할 수 있는 국민 의식의 대전환을 위해 제2건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와 단절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했던 시대 가치를 반드시 붙들고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못한 게 있다면 성취해 낼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을 제가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틀 자체는 함께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형태로 여러분이 못 다한 제2건국 운동을 제가 지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사회가 정보화 시대로, 지식기반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기 위해 제2건국운동을 추진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시대, 원칙과 신뢰, 이런 기본적인 정신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계속 도와주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꾸짖어 주십시오. 이 형태를 그대로 가지 못하는 섭섭함도 잊어 주시고 참여정부가 하는 일 협조 해 주십시오.